

이색 가을축제 2제

희귀한 ‘육각 귀족호도’ 구경 오세요

26일~30일 장흥 장평면서

200 농가 참여 다양한 행사

호도나무의 원산지는 현재의 이란 지역인 페르시아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충렬왕 때 유청신이 원나라에서 들여와 ‘호도’(胡桃)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중 장흥에서만 유일하게 생산되는 ‘귀족호도’는 주름과 굵이 깊고 예로부터 귀하다 해 붙인 애칭이다.

‘귀족호도’를 테마로 한 축제가 26일부터 30일까지 장흥군 장평면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장평 명품 귀족호도 축제’는 친환경 농산품과 특산품 판매로 지역 브랜드까지 제고는 물론 농가 소득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해보자! 호도의 고장 명품 장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장흥 관내 200여 호도농가가 참여해 다양한 호도를



선보인다. 우수 호도를 선발해 으뜸상·아자상을 시상한다. 또 명품 귀족호도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 판매장도 별도로 마련된다.

귀족호도는 토종수종인 가래(추자)나무와 외래수종인 식용 호도가 자연교배해 만들어진 특유의 나무로, 먹을 수 있는 핵(核)이 없지만 양각·삼각·사각·육각 등 독특한 모양새 때문에 손은동용·건강 지압용 노리개로 제격이다. 호도를 손안에서 굴리면 손끝 말초신경을 자극해 전신 피로회복과 수전증·치매예방,

집중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준다. 그래서 일명 ‘효(孝) 호도’라고도 불린다.

가격은 5만원대~3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호도 내용물이 없어 파종해도 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접목으로 번식시킨다.

한편 지난 2003년 장흥읍 향양리에 개관한 ‘귀족호도 박물관’(관장 김재원)은 관광코스도 각광을 받고 있다. 장흥에서만 자생하는 ‘귀족호도’를 다양한 품종으로 육종하고, 명품을 관리하며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자 건립한 자연 사립 박물관이다.

박물관내에는 300년 이상된 원종이 자리하고 있다. 김 관장은 귀족호도의 3대 아름다움으로 ▲오랜 세월 같이하는 연륜의 미(美)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하는 기다림의 미(美) ▲두 알이 비슷해야하는 조화의 미(美)를 꼽는다.

/장흥=김용기기자·충부취재본부장

풍성한 들녘서 ‘추억의 메뚜기 잡기’

내달 2·3일 강진 작천면서

고구마·땅콩 캐기 체험도

오즘 메뚜기를 직접 잡아본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어린 시절 곡식이 익어가는 황금들판에서 메뚜기를 잡던 아련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어른에게는 향수를, 아이에게는 즐거움을 선사할 메뚜기 축제가 10월 2일부터 3일까지 강진군 작천면에서 개최된다.

대표적인 친환경 유기농 실천 지역인 강진 작천면 주민들은 농약을 쓰지않으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친환경 곤충의 대명사 메뚜기를 축제 테마로 잡았다. 메뚜기가 많다는 것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지역임을 의미한다.

축제에 오는 관광객들은 채로 황금들판에서 메뚜기 잡기를 할 수 있고, 미꾸라지와 다슬기도 잡아 직접 음식을 해먹을 수 있도록 했다.

축제장에서는 별미로 메뚜기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메뚜기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철 등 영양소가 풍부해 미래 식량으로 주목받는 곤충이기도 하다.

첫째 날인 2일에는 사물놀이 등 식전



다음달 2~3일 강진군 작천면 황금들판에서 제1회 메뚜기 축제가 열린다. 벼가 익어가는 들판에서 채로 메뚜기를 잡고 있는 관광객들.

행사를 시작으로 개막식과 개막 축하공연이 열린다. 체험장인 전남도 축산연구소 친환경 체험목장에서는 하루에 30분씩 2회에 걸쳐 고구마와 땅콩캐기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둘째 날인 3일에는 고구마·땅콩캐기 체험과 함께 용동 저수지에서 가래치기 체험행사도 열린다. 가래치기는 ‘물고기를 쫓아 가래(대나무나 갈대를 엮어 만든 원뿔형 바구니) 속에 가둬 잡는 전통 고기잡이법이다.

특히 행사장내 ‘그리운 고향음식관’에서는 어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친환경 시골 밥과 물전어찜, 다슬기된장국, 김치와 토속나물로 준비한 ‘그리운 고향밥상’을 선보인다.

물전어는 붕어 등 민물고기에 무청시래기를 넣고 끓인 찜계를 일컫는데, 민물고기의 내장을 제거하고 고구마대, 무, 시래기 등을 넣고 푹 푹 음식으로 뼈를 빠르지 않고 통째로 먹는 게 특징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i@

미래비전·소통·혁신...강진군정 3대 과제 선정

3개월간 344건 발굴

민선 6기 추진과제 보고회

강진군이 10년 후, 20년 후 먹고 살 ‘미래비전’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22일 군청 회의실에서 군정 3대 과제 보고회를 가졌다.

3대 과제는 ▲대형 프로젝트 개발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미래비전 과제’(93건) ▲정직과 친절 등 사회적자본 함양과 현장행정을 위한 ‘사람중심 소통과제’(75건) ▲모든 군정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개혁·혁신과제’(76건) 등 총 344건으로 이뤄져 있다.

‘미래비전 과제’로는 개방화·고령화되어가는 농업 트렌드에 대응한 노동력 절감과 고소득 창출을 위한 ‘자연순환경 생명환경농업기반 구축’, ‘들녘별 공동경영체 집중육성’, ‘기능성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헬시(Healthy) 축산업 보급 육성’ 등이 선정됐다.

‘사람중심 소통과제’는 ‘평생교육의 요람 군민자치대학 내실 운영’, ‘전국 향우와



강진원(가운데) 강진군수가 민선 6기 군정 3대과제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함께 고향사랑 뽀투어’, ‘365 재능나눔센터 운영’, ‘강진사랑 가보장’ 강진! 서포터즈 운영’ 등이 제시됐다.

또 개혁·혁신과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해 ‘농업보조사업 효율성 제고’, 사회단체의 사업성과 향상과 민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컨설팅 지원’ 등을 발굴했다.

군 800여 공직자들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각종 업무와 사업안을 세밀히 검

토·분석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머리를 맞대며 과제를 발굴했다.

군은 분야별 정책위원회 및 직능단체 등과 보고회를 거쳐 군민들에게 주요내용을 적극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과제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강진원 군수는 “3대 과제 추진시 소요되는 예산은 각종 공모사업과 창조지역사업 선정 및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i@

바둑 테마파크로... 영농 현장으로... 영암군 현장소통행정 박차

전동평 영암군수가 민선 6기 로드맵 완성을 위해 ‘현장소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 군수는 지난 23~24일 이틀간 군정 주요현장인 영암읍 바둑 테마파크와 마한 문화공원, 군서면 주거변천사 전시장, 삼호읍 도시계획도로 공사장 등지를 방문했다.

이어 학산면 용산리 병해충 피해현장과 덕진면 금강리 벼 수확현장, 영암읍 대신리 무화과 수확현장을 차례로 찾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였다.

앞서 전 군수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재래시장을 방문해 추석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산업경제·도시건설·환경 부문 사업장을 찾아 꼼꼼히 살핀바 있다.

전동평 군수는 “소통하고 협력하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군민의 의견을 겸허



바둑 테마파크 조성현장을 찾은 전동평(오른쪽) 영암군수.

히 청취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기초단체의 현실과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팔목할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 공직자가

모두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전국 화가 250명 초청 월출산 스케치 행사

‘제10회 전국 화가 초청 월출산 스케치 행사’가 27~28일 이틀간 월출산 일원에서 열린다.

영암출신 작가 모임인 월출미술인회(회장 조동희)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유명 화가 250여 명을 초청했다.

군은 참여 작가들의 ‘월출산스케치 행사’ 작품을 도록으로 제작해 참여 작가와 전국 미술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월출

산 스케치 행사 결과물은 2015년에 열리는 왕인 문화축제와 연계해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월출산 표현 작품에 대한 대도시 교류 전시행사를 확대 개최해 전국적으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산’으로 각인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SD메디컬 빌딩임대

양산사거리 최고상권!

지하 주차장 시설완비 엘리베이터 2기 운용(대형,중형)

6층
98평
병의원 및 사무실

3층~5층
각층 124평
병의원 및 사무실

1~2층 임대완료

레스토랑,약국 다이소

지하1층 주차장

SD메디컬 빌딩

용두주공 양산타운

APT APT

롯데리아 • 국민은행

문의 : 010-8625-1131(분양사무실)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화정동 티마힐인근 대지 661㎡(200) 7층 건물 245㎡(741) 은행 15억 전세 4억 이상 월 1500선 수매매도 23억
- 북구 병림, 요양시설 적합 대지 1057㎡(320) 건평 1962평 34억
- 금남로 가구점 대지 416㎡(126) 공시지가 12억7천 은행 8억 매도 11억
- 계림동 준주거 대지 799㎡(242) 5층 건물 1610㎡(487) 건평 14억 5천 은행8억3천 사옥 등 적합 교환가능 10억
- 유봉로타리 인접 대지 235㎡(101) 건물 185평 공시지가 3억9천 매도 4억천
- 금남로 4가 대로 대지 317㎡(97) 건평 1235㎡(363) 공시지가 14억 매도 14억5천
- 모텔 급매 전복 부근 번산면 대지1677㎡(507) 건평 1394㎡(422) 객실 48개 대출6억1500 매도 7천2천원
- 전원주택/힐러이합 화순군 동면 일이 126908㎡(38390) 공시지가 6억6천 화순 군청에서 15분 거리 10분

투자 / 매도 / 교환

- 쌍촌동 대지 198㎡(60) 건물 453㎡(137) 1층은 기계와 인접 월률 15개 5억 2천
- 쌍촌동 신축건물 대지 215㎡(65)건물 418㎡(126) 안집과 월률 5개 투를 4개 대출1억5천 매도 6억4천
- 모텔, 담양 대지 978㎡(296) 객실 24개 은행 3억7천 매도 5억천
- 충정로5가 4거리 코너 대지 272㎡(87) 건평 493㎡(149) 8억2천
- 쌍촌역 고시원 대지 272㎡(87) 건평 493㎡(149) 보증금 3천만원에 월 490만원 선 수익 노후생활에 적합 5억2천만원
- 반백나무산 정성군 산계면 36099㎡(10900) 1억2천
- 광주역 모텔 대지 635㎡(192) 객실 36개 은행 7억5천 매도 11억
- 보성만을 토지 순천시 상시매 담360평 3300만원
- 진월동 호반아파트 옆 대지 201㎡(61)대출 7500 매도 1억8200

임대

- 쌍촌동 기도생활주택 1.2차 임대 매도 임대는 보증금 500 월 40선01-음대조근은 조경 호들갑 시설 사생활 보호에 완벽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기도 생활주택 전시간

바닷가 전원주택지

완도군 고금 해룡리 남향 바닷가 조망원룸 전원주택지

- 지역 : 생물관리지역 등
- 지목 : 전
- 면적 : 7,670㎡
- 매가 : 3.3㎡ 당 12만

소액투자

완도군 고금면 농상리 고금-신지 국도 주변 바닷가, 경사 완만, 전망 좋음.

- 지역 : 관리, 농림 혼합
- 지목 : 전 및 임야
- 면적 : 8,569㎡
- 매가 : 3.3㎡당 3만

최고의 전원주택지

서구 세하동 최고 요지 정남향 앞도로 점, 조망권 최고 !!

- 지역 : 1종 주거지역
- 지목 : 전
- 면적 : 1917㎡
- 매가 : 3.3㎡당 120만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무소 대표:송창석

011-642-7777

특별 빌라분양 6세대

충분양가 530,000,000원

1세대 월세 보 2천만원, 월50만원

1세대 전세 보 7천만원

1세대 분양 1억1천만원 가능

1세대 용자 6천만원

1세대 전용 59.4㎡ 분양 72.6㎡

◎ 위치 ◎ 광주 북구 윤양동 140-22

부자가치100% “강력추천”

다와옥션

☎062)232-9994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